“변화와 소통으로 한국불교 대도약”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기호 1번 경우 스님

“시대 맞는 종단 운영 · 리더십 시급”
수행 가풍 최우선…기금 조성 추진
교구자치 · 비구니 참종권 확대 공약
‘합의와 소통’ 원칙으로 종단 운영
“단임제 바람직…단일화 긍정 기대”

대담 · 정리=여수령 기자



경우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순창 만일사 · 경기도 광주 장경사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 감사국장 · 호법국장 · 사서실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14 · 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선운사 주지에 취임해 최근 교구장직을 사직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사진=김내영 기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경우 스님의 출마를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중앙과 교구의 주요 소임을 두루 거치며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총무원장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우 스님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변화’를 꼽았다. 급변하는 사회와 새로운 세대에 불교적 가치와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종단 운영과 리더십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스님은 총무원에 집중된 종무행정을 과감히 교구로 이양하고, 총무원장은 대정부·대사회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종단 운영을 위해 교구와의 공동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행정 참여와 참종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합의와 소통’을 원칙으로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 스님과의 인터뷰는 8월 10일 서울 조계사 인근 찻집에서 진행됐다.

Q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불교는 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 전 세계적인 탈종교화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새로운 세대에 불교적 가치와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종단은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며 관성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대도약과 퇴보의 갈림길 위에서 있는 상황에서 종단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Q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출가자 수가 급감하고 신도 수도 크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수행’과 ‘포교’라는 두 축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청정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청정 수행 가풍을 바탕으로 포교에 매진하고 전통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자승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전법합시다’라는 선언처럼 전법과 포교에 종단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총무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그동안 총무원장의 역할은 종무행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은 과감히 교구로 이양하고, 총무원장은 대정부·대사회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단 내적으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종단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소통과 합의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Q 38대 집행부의 중점 과제는?

첫째는 당연히 교구본사 중심제입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교구중심제를 얘기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감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둘째는 종단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젊은 불자 양성입니다.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사업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또 대정부 관계에서 종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 사찰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종단이 취합해 정부와 협의해 일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Q 수행지원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조계종의 수승한 수행 가풍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적 가치입니다. ‘수행지원기금’은 모든 스님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뒷받침입니다.

제가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아 고창 불교회관과 전주 포교당 불사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공심으로 살림을 공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종단 역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수행지원기금 조성도 원만히 이뤄질 것입니다.

Q 교구자치 구현 방안은?

교구자치의 핵심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가 실질적인 지역 수행·포교·전법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사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열리는 본사주지회의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Q 비구니 참종권 확대 공약은?

본사 주지로 일하며 비구니 스님들이 국장 소임을 맡고 전법위원회에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내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이 종단 발전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선 비구니 스님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참종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비구니회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나아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Q AI시대 불교의 역할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은 종단의 미래 경쟁력과 존립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류가 물질의 생산과 분배에 몰두하는 동안 정신적 빈곤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속도, 효율을 좇는 시대에 불교적 가치는 인간의 정신적 허기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폭넓은 확장성과 잠재력을 보여왔습니다. 종단은 이 같은 역량을 기반으로 불교의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미래지향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행정·교육·포교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Q 불교광장 회장 소임을 맡았던 소회는?

불교계에서도 ‘정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저는 그동안 ‘출가수행자’라는 점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불교광장 회장 소임은 승가공동체의 발전과 화합,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해 극구 사양하다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불교광장이 본래 취지와 역할을 되찾아 종단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선거로 인한 갈등에 우려도 큰데.

선거 때마다 비방과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총무원장 연임 과정에서 혼란이 컸던 만큼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단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임기를 5년으로 늘이거나 장기적인 종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Q 단일화 이유와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현 집행부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이뤄졌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념 스님과는 ‘합의와 소통’에 바탕을 둔 종단 운영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어떤 총무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대중과 함께하는 총무원장, 책임지는 총무원장’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4년 동안 공심으로 일하고 맡은 소임을 다하는 총무원장을 발원합니다.

Q 종도와 불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세력이나 힘에 의해 선거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라도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종책으로 서로 경쟁하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한국불교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대도약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새 역사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